

마닐라에서 펼친 날개: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승민

ADB에서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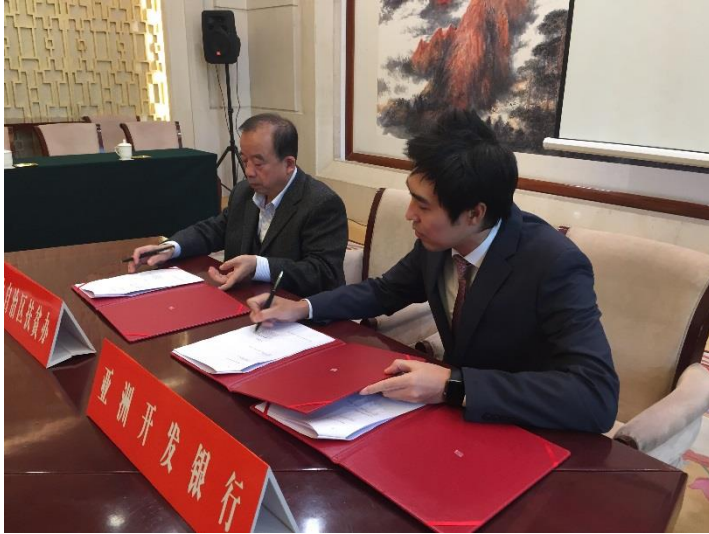


꽤 막힌 마닐라 도로위에서 사무실에서 오전에 있을 중국중앙은행과의 프로젝트 결과보고를 머릿속으로 다시한번 그려본다. 결과물로 나온 보고서의 현지어 번역이 늦어져서 리뷰가 늦어진 점이 지적될 것 같아 걱정이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오늘 오후 일정을 체크한다.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 몽골 국경지역 교역 활성화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기될 철새 도래지와 보호습지 등의 환경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 사내 환경전문가와 따로 신청한 사전 면담이 오후 늦은시간으로 미뤄졌다. 다행히 국경지역 극빈가구들에 대한 지원계획과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임팩트를 설명하기 위해 짧은 프리젠테이션 노트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다.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먹거나 샌드위치를 사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먹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은 사내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 직원분들과 점심을 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이곳 생활과 업무 얘기를 나눈다. 간만에 즐거운 점심 시간이다. 사무실로 돌아와 2 주후로 예정된 베이징 출장준비 상황을 비서로 부터 브리핑 받는다. 오후 미팅과 보고서 리뷰,

프로젝트에 투입될 컨설턴트 화상 채용인터뷰 등을 마치니 어느새 퇴근시간이 되었다. 교통체증은 스트레스지만 해가 길어지면서 아름다운 마닐라의 석양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음악을 듣고 있지만 내가 맡은 여러프로젝트의 다양한 이슈들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전혀 새로운 도전과 업무로 채워진 하루가 지나간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어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지만 고시공부에 매몰되어 대학생활을 보내기 싫었다.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고 세상이 궁금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얼 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찾고 싶었다. 틈만 나면 여행을 다녔고 사람을 만났고 책을 읽었지만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무작정 떠난 1997 년 여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무렵 한국은 외환 위기로 절망적인 상태였다. 처음으로 경제 금융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금융전문가가 되는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는 군복무기간에 찾게 되었다.



평택 미군부대에서 근무할 때에는 장교들이 주말에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의지로 온 것도 아니고 다른나라에 파병와서 남은 자유시간에 한국 국민들을 돕는 장교들의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도 삶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뭔가 의미있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4 학년 마지막 학기를

휴학하고 인도의 Madurai 라는 곳에서 6 개월간 자원봉사를 하며 현지 NGO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무보수로 많은 시간을 사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지냈다. 단순히 돈을 벌며 이기적으로 살게 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보상처럼 생각하고 떠난 인도행이었지만 이 기간동안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향후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가지 원칙을 정하게 되었다. 어떤 직업이든, 내가 하는 일의 결과 그리고 보상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되는 일을 할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기관, 그것도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국제 무대에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관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랬고 그 때 처음으로 국제기구, 특히 World Bank 나 ADB 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문턱은 매우 높아서 기본 자격 요건이 석사 이상에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또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갖춘 영어실력 외에 아무런 해당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걸음 한걸음 차근차근~



마침 국민은행에서 유학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신입행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해외 석사학위가 필요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내게는 더 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2003 년부터 국민은행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며 금융섹터 경험과 경력을 쌓았고, 동시에 매주 시민단체에도 나가 토론도 하고 출판 활동도 지원 하는 등 공익적인 활동을 일상 속에서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입행 4 년째가 되는 해부터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하여 코넬 대학교의 MBA 과정에 합격할 수 있었다. 직장생활과 유학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뚜렷한 목표와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MBA 과정 처음부터 국제기구, 특히 World Bank 나 ADB 입사를 목표로 했던 나는 차근차



근히 준비해서 ADB 의 여름 인턴으로 선발되었다. 인턴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인턴 포지션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경력과 봉사활동 경험,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담은 에세이를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인턴이 되었지만 정식으로 채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통상 7-8 년 이상의 전문적인 직장경력을 요구하는 경력직 채용의 특성상 4 년의 경력은 너무 짧아서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웠다. 인턴십 기간 동안 좋은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었고 내 능력과 열정을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가 필요했다.

보통 인턴십은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리포트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에서의 반응이 사실상 인턴십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된다. 당시 ADB 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모델의 하나로 Covered Bond 라는 생소한 구조화 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었고 마침 내 인턴십 주제와 일치했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과 리포트에 모든 것을 걸고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구조화 채권을 활용해서 ADB 가 어떤 모델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사례와 모델을 제시한 것이 주효했고 큰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덕분에 미국으로 돌아가 2 학년을 마칠 때까지 인턴을 했던 부서 사람들과 구조화 채권 관련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며 연락하며 지냈고 2009 년에 Financial Sector Specialist 라는 Consultant 포지션을 제안 받아 ADB 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2011 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Offi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지역경제협력국) 부서를 거쳐 현재 East Asia Department (동아시아국)에서 일하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내일

ADB 에서 근무한지 10 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매일이 새롭다. 오늘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지 걱정반 기대반이다. 그래도 ADB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을 줄이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결과는 큰 보람이 된다. 64 개국 출신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과 함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다. 문화적

차이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면서 생각치 못했던 문제해결 방식을 찾거나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에 맞춰 ADB도 지식중심의 개발은행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나 역시 끊임 없이 공부하고 혁신해야 변화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항상 노력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다양한 도전을 마주해야 하며 어디에도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열정과 즐거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즐겁게 도전과 마주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하다. 늘 같지만 새로운 내일이 기다려진다.

이승민: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Cornell University 에서 MBA 를 취득하였다. 국민은행에서 신탁자산운용부 채권 펀드매니저 등으로 일했으며 2008 년 ADB Internship 을 거쳤다. 현재 East Asia Department (동아시아국)에서 Financial Sector Specialist 로 근무하고 있다.